

신건축

2005년 6월호

이번 호에 서는 특징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에 완공된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과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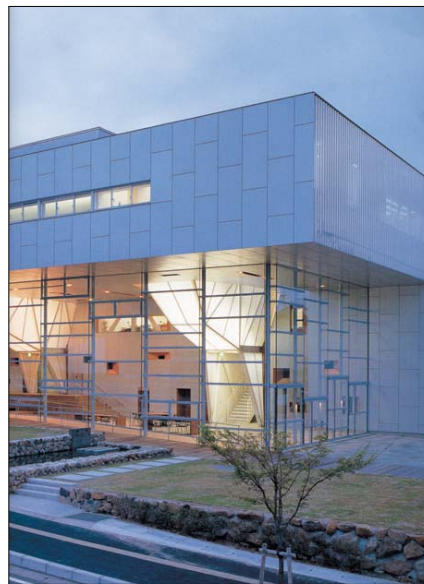
주호동의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상당부분 할애되었다. 이 외에도 '스페이스블록 노자와'를 비롯한 중·소형 집합주택과 소개되었는데,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주거로 리노베이션 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외에 '니시아리타 타운센터' 및 본인의 설계작품을 중심으로 기고한 團紀彦의 특별기사가 눈에 띈다.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 구조와 공간, 의장의 절묘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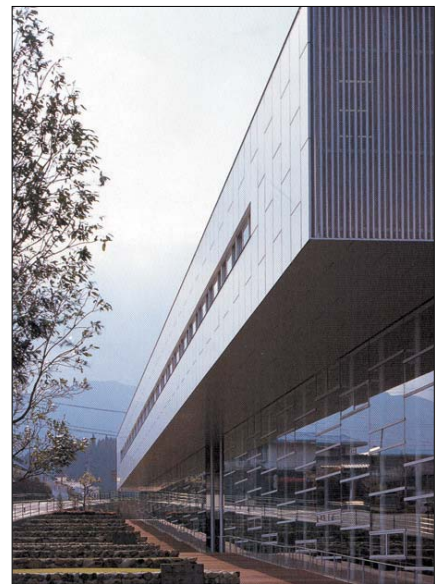
설계 : NKS아키텍츠+토리사(桃季舎)

동사무소와 지역 커뮤니티시설이 복합된 이 건물은 부지의 형상을 능숙하게 이용하면서도 구조와 공간의 기능적 이용, 그리고 건축공간의 의장적 측면을 간결한 형태로 통합시킨 건물이다. 부지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국도에 면해 있으면서 동서로 긴 형태로, 동측과 서측의 고저차가 8m에 이른다. 따라서 1층의 레벨은 지형의 구배에 맞추어 2개의 레벨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레벨차로 형성된 공간의 구획은 각각 동사무소와 지역커뮤니티 시설의 영역으로 할당되었다. 경사진 부지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건물의 형태는 두툼하고 거대한 지붕이 부지 위에 떠 있는 형상으로 계획되었다. 이 지붕구조체 내부는 사무실로 사용되며 지붕 구조체 아래에 만들어진 층고가 높은 공간은 유리 커튼월로 피복되어 밝고 개방적인 장소로 마련되었다. 이 곳은 동사무소의 민원을 맡아보는 사무실과 시민에게 개방된 '시민로비'로 활용된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크레인(크레인의 내부)'으로 이름 붙여진 부분이다. 거대한 지붕구조체를 지지하기 위한 이 구조물은 마치 거대한 까치발과 같은 모습이다. 동서로 상당히 긴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건물에 적절한 간격으로 총 4개가 설치된 이 크레인은 지붕구조의 지지체인 동시에 상·하 공간을 연결하는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니시아리타(西有田) 타운센터



크레인의 내부

수직동선이며, 동시에 주간에는 자연광으로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통해 실내를 비추며 장식해주는 조명시설이자 조각적 오브제인 것이다. 철골의 골격에 반투명 유리로 감싼 이 크레인의 내부 공간은 계단실로 사용되며, 천장에는 천창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1층의 홀 공간과 중2층 및 2층의 사무실 공간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밝게 빛나고 있는 크레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갖을 씌운 거대한 등을 연상시킨다. 이 밝게 빛나는 '크레인'은 1층의 개방된 유리면을 통해 건물의 동측과 남측을 지나는 도로에까지 건물이 지니고 있는 활력을 어필하기까지 하여 건물의 내·외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건축적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블록 노자와

설계 : 코지마 카즈히로+아카마츠 카즈코

지금 도쿄에서 산다면 어떠한 모양의 주택이 적합할 것인가? 조금씩 임대료를 늘려갈 것이라면 비록 극히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유능한 건축사가 설계한 자기 자신만의 유일한 집을 소유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일본에서의 주택 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거주자와 건축사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 요구되는 선택인 것이

다. 따라서 임대를 위한 집합주택을 설계할 경우 설계자는 유능한 건축사가 설계한 독립주택과 같은 공간의 질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코지마와 아카마츠는 일련의 '스페이스블록(space block)'으로 이름 붙여진 집합주택의 설계를 통해 부지 안에 공간의 불륨을 쌓아 올려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일관되게 해왔다. 가장 최근의 작품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한 '스페이스블록 하노이'이다. '스페이스블록 노자와'는 이들이 처음으로 도쿄에 스페이스블록 개념을 사용하여 설계한 집합주택이다.

건물의 중앙에는 일본 법규상 이루어지고 있는 '공용부 용적을 완화'를 이용하여 상하로 오픈된 공간이 존재하는 계단실을 만들어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건물의 외벽에는 폭 60cm의 간격으로 글래스 루버를 설치해 더블스킨 구조를 만들었다.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글래스 루버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빛, 바람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주호



스페이스블록 노자와

의 거주자에 의한 루버의 임의적인 개폐, 조명의 점등 여부에 따라 입면에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어 입면은 전체적인 통일성 속에 변화감이 가미되게 된다. 설비는 건물의 외주부 3곳에 PS공간을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있으며, 욕실이 외기에 면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기사 : 지형과 건축

최근 지형(topology)과 건축의 관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건축사에게 자신의 설계수법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시류를 인식한 듯 신건축지에는 일본의 건축사 團紀彦의 글을 중심으로 특별기사가 게재되었다. 학술적 논문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론적 전개 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경향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참여한 작품들의 소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건축은 지형(땅)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건축과 지형에 관한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각을 넓혀서 본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과 지형관의 관계에 대한 카테고리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중국 황하 유역의 야오통 집락이나 카파도키아의 석굴수도원 등을 보면 '건축은 지형 속에 만들어 진다'는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 리베라가 깎아지른 해안의 암반 위에 1938년 세운 마르파르테는 건축이 또 다른 지형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카테고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근대건축이 추구해 왔던 '지형 위에 서있는' 혹은 '지형 위에 떠 있는' 건축의 개념에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는 이와 같은 근대건축의 지형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근대건축의 대부분이 지형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희박했던 것은 첫째, 기계나 생명체와 같이 대지로부터 독립된 오브제 타입의 영향을 받은 데에 기인하며 둘째, 근대합리주의나 막시즘을 시작으로 하는 20세기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세계 규모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특정한 로컬리티와의 연결을 경원시켰기 때문은 아닐까. 근대건축이 수많은 환경 파괴와 전통적인 도시문화에 위화감을 가져왔던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근대건축이 평탄한 지형을 선호하고, 또한 장소로부터 독립된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자는 '20050아ichi만국박람회'의 박람회장 초기안, '교토 아쿠아리나', '대만의 상향(向山)지구 풍경관리소' 및 '스이세(水社)지구 버스터미널 공원' 등 지형과 건축이 어우러진 최근작들을 소개하면서 '유니버설 폼(universal form)'이란 다소 생소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 개념의 논리적 타당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團紀彦을 토대로 건축의 중심에 서 있는 건축사로 각인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시노노메 캐널코트 CODAN'은 건축사 팀과 랜스케이프, 조명, 사인디자이너 그리고 도시기구의 collaboration에 의한 디자이너스 임대주택으로 금년 3월경에 완공되었다. 완공 이래 국내외 건축 관계자들도 많은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 완공 이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주택단지이다.

단지는 총 6개 가구(街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토 아쿠아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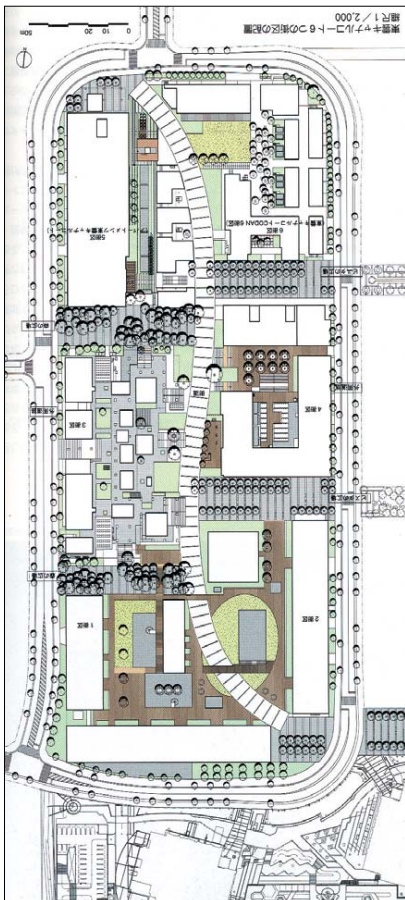


스이세(水社)지구 버스터미널 공원

각 가구에 세워지는 집합주택은 아마모토 리켄, 이토오 쥬오, 쿠마 켄고 등 저명한 일본의 건축사들이 설계를 담당하였다. 이 중 아마모토 리켄은 단지 전체의 어드바이저 역할도 맡았다. 6개의 가구는 이처럼 각기 다른 건축사에 의해서 다른 삶의 모습이 디자인 되었다. 시노노메 캐널코트는 각 주거동의 건축 디자인 뿐만 아니라 단지의 구성 및 랜스케이프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의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살고, 일하고, 즐기는 24시간의 생활을 서포트하는 여유 있는 마찌즈쿠리'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도시생활을 서포트하는 S자형 예비뉴(avenue)

CODAN의 중앙을 S자형으로 관통하는 'S자형 예비뉴' 골짜기에는 주거의 유택함을 더하는 다채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는 활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시노노메 캐널코트의 건축·조경·단지 디자인

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2)환경을 배려한 옥상녹화

CODAN에서는 옥상녹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히트 아일랜드(heat island)의 완화나 건물의 단열강화, 나아가 녹음이 우거진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에 유택함을 가져다 주고자 하였다.

3)활기찬 커뮤니티 스페이스

단지를 둘러싼 도로와 S자형 예비뉴를 연결하는 4개의 녹도는 거주자의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각 주동의 엔터런스도 녹도를 면하여 설치되어 주거 단지내 보행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자 하였다.

4)새로운 직주근접형 마찌즈쿠리

각 블록의 저층부(1~3층)에는 거주자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유택함을 부여할 수 있는 생활편리시설이나 SOHO가 계획되어 잠자고 휴식하는 것에서부터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생활의 장면에 대응하고 하였다. 이 밖에도 어린이나 고령자를 배려한 단지계획 요소들이 포함되는 등 새로운 주거단지의 모델로서 고심한 흔적들이 엿보인다. 시노노메 캐널코트가 과연 근미래 집합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